

노무현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은 원칙과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직하게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이 이기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19층 창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 지하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는 존엄한 이름 때문에 같은 권리를 가졌다고 믿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5시간 안에 어디든 달려갈 나라에서,
더 이상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찢어져서
다투지 않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자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약한 자에겐 목소리를 낮추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촛불을 든 우리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술하게 다치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난 자의 희생도 크지만, 남아있는 어머니의 아픔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모두 더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라고 노무현은 믿습니다.

12월 19일, 우리 모두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무현과 만납니다 • 후보연설 MBC-TV 19:00~19:20 • 찬조연설 SBS-TV 23:05~23:25

www.knowhow.or.kr

새로운 대한민국 -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1588-2002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 새천년민주당

2 국민후보 노무현

34057